

베트남 홍하 델타에서 만난 어느 “영웅어머니”의 삶

신은영*

부이 티 밋(Bui Thi Mit)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3시간 가량 차로 달리면 타이빙(Thai Binh) 성(省)이 나온다. 부이 할머니의 집은 이 성의 남동쪽에 위치한 끼엔 쓰엉(Kien Xuong) 현(縣) 밍뎐(Ming Tan) 싸(社) 즈엉 리에우(Duong Lieu) 촌(村)에 있었다. 밍뎐은 인구 7,000 명이 살고 있는 싸(社)로 4개 촌(村)으로 이루어졌다. 부이 할머니의 집은 복도도 없이 방 두 칸으로 이루어진, 마을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한 집이었지만 내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경험한 할머니의 태도는 항상 당당하고 유쾌해 보였다. 그렇다고 그녀가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남들에 비해 고생을 적게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할머니의 가족사는 곧 베트남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의 피해자였다.

내가 1923년생이니까 올해로 81세야. 열여섯의 나이에 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인 할아버지와 결혼했고 1944년인 21살에 첫 딸을 낳았

* 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7개월만에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 그 전에 일 본군인들이 들어와서 논에서 벼를 다 뽑고 다른 나무들을 심도록 했는데, 그것 때문에 46년까지는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갔지. 1945년 베트남 북부에 공산당 정권이 성립되었고 식량사정이 점차 나이지기 시작했어. 첫 딸이 죽고 난 다음해인 1947년 첫 아들을 낳았고 48년, 50년, 52년 연달아 아들을 낳게 돼서 아주 기뻐했어. 유격대 대장이었던 할아버지가 프랑스군에 대한 유격활동을 하다가 51년 전사했을 당시 셋째가 한 살이었고 막내는 뱃속에 막 생긴 상태에서 입덧이 시작될 무렵이었어. 큰 아이가 4살이었으니 우리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자랐지. 나는 막내를 임신한 상태에서 꼬물꼬물한 아이들을 세 명 데리고 살아남아야 했어. 쌀은 부족하고 해서 야채, 나무껍질, 바나나 뿌리 등을 섞어 먹으면서 그 날 그 날 연명했지.

그러나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을에서 부녀주임으로 정치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정치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한 공산당의 정책에 부응해서이다. 베트남의 농촌에서 여성들은 옛날부터 농업생산활동과 상업활동에 종사해 왔으나 남편이 부인을 때리거나 아들을 못 낳을 경우 다른 부인을 볼 수 있는 관습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지위는 그에 걸맞지 않은 면들이 있었다. 공산당은 정책으로 이러한 구관습을 금지하였고 여성들 자신이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러한 실상을 간섭하는 등 각 마을에서 봉건적인 구질서를 타파하게 하였다.

1954년 베트남이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이래 홍하(紅河) 델타 지역의 식량사정은 한결 나아져서 먹고 살 만하게 되었지만 부이 할머니 가족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의 남부는 여전히 프랑스와 그를 지원하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통일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농촌의 각 마을에 정병자 수가 할당되자 열 여섯 살 이상의 젊은이들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부이 할머니의 큰아들과 둘째 아

들도 1965년에 마을을 떠났고 자식들 중 두 명만 군대에 가면 의무는 없었지만 67년에는 셋째 아들도 군대에 가기를 희망하여 떠났다. 큰아들은 남부 다낭(Da Nang)까지 내려가 전투하던 중 1969년 전사했다고 한다. 그가 전투를 했던 지역은 한국군들이 들어가서 싸웠던 지역이어서 어쩌면 이 큰아들은 한국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가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떠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어. 아빠 얼굴도 모른 채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면서 자랐는데, ...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외국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통일을 이루지 않는 이상 비극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마을에 징병자 수가 할당되면 우리집 아이들이 가장 우선순범해서 자원해 나갔던 거지.

남편을 전투에서 잃고 자식들마저 전쟁터에 보내야 했던 할머니의 슬픔이 나에게도 전해져 정말 가슴이 아팠다. 결국 1967년 군대에 들어간 셋째아들은 미국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아 조국의 해방을 보았지만 곧이어 중국과 벌어진 캄보디아전쟁에서 1977년 전사하고 말았다. 셋째 아들은 당시 막 결혼한 상태였고 전사당시 부인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다. 가족의 비극을 대물림한 결과가 된 것이다. 며느리는 곧 딸을 낳았고 딸이 도시로 떠난 뒤 시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1986년 대령으로 예편했고 유복자로 태어났던 막내아들은 장학생으로 뽑혀 폴란드에 3년 동안 유학을 가서 조선업 관련 기술을 배워왔다. 결국 할머니의 집에는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과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베트남인들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에게는 형제가 다섯 있는데 모두 살아 있으며 하이퐁(Hai Phong)에 사는 막내 동생(71세)을 제외한 세 형제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 집에 머무는 동안 나를 한 번 보겠다고 자주 방문하였다. 위로 언니와 오빠는 각각 84세와 82세이고 바로 아래 동생은 할머니보다 다섯 살 연하로 자녀가 아홉명인데 전쟁에서 다 살아남아 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기아에 시달렸으면서도 베트남 농민들 가운데는 할머니의 형제들처럼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 이미 노년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 있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혼자 남았다는 할머니의 언니도 그렇지만 자식이 아홉이나 살아남았다는 바로 아래 동생도 차림새가 상당히 빈티가 나 보였다. 이는 부이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할머니는 전사한 할아버지와 큰아들의 연금으로 39만동(dong)을, 남편과 자식 가운데 두명 이상을 잃은 “영웅어머니”(Ba Me Viet Nam Anh Hung)로서 현(縣)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에서 10만동을 받고 있었다. 대령으로 예편한 둘째아들의 연금 60만동과 비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적어 보이지만 둘째아들은 그 연금 덕에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총수입은 비슷해진다. 할머니 집에는 도시에서 직장을 잡아 도시호구를 취득한 손녀의 토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며느리의 이름으로 분배된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토지를 경작해서 얻는 1년 현금수입은 1인당 120만동 정도 된다고 한다.

베트남 농민들은 쌀을 이용해 만든 음식들도 많지만 주로 육식을 많이 한다.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생선을 즐겨먹는다. 모든 농가에는 연못이 하나씩 있어 거기에서 생선을 잡아 즉석에서 요리한다. 닭이나 생선을 살 경우에는 한 마리에 10,000동(한화(韓貨)로 900원) 정도이다. 할머니는 살이 더 찌면 병에 걸린다고 주로 고기는 거절하고 생선을 위주로 식사를 했다. 식사시간이 되면 벽돌로 된 방바닥에 돛자리를 짝 깔고 쟁반에 음식들을 날라 와 그 위에 앉아서 먹는다.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볶거나 찌지 않은 생차잎을 그

대로 물에 담가먹는다. 생잎이기 때문에 중국농촌에서 먹던 차보다 훨씬 맛이 강하다.

베트남 농민들은 내가 그 곳에 있는 동안 자기들이 가난하다고 계속 강조하였지만 가난의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잘 먹을 뿐 아니라 모두 86년 이후에 새로 지은 집들에서 살고 있었고 집집마다 칼라 TV를 가지고 있었다. 옷들도 모두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닌다. 다만 현금수입이 많지 않아 자식이 공립고등학교에서 떨어져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혹은 도시의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현금을 필요로 하는데 부모가 열심히 일하면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 하나 정도는 가르칠 수 있지만 들은 힘들다고 한다. 더욱 부러운 것은 그 농촌벽지의 탁아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는 것이다. 개혁정책 실시 이후 탁아비를 부모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토요일까지 종일 보아주고 한 달에 6만 동을 받는다. 농사짓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베트남 농촌의 생활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다.

부이 할머니에게는 손녀 여섯, 손자 하나가 있는데 가장 큰손녀가 결혼해서 바로 옆에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에서 일하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다. 자식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생각하는 베트남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금수입의 대부분을 손자들의 학비와 생활비에 보내고 있었다.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감수했던 할머니는 이제는 손자들의 장래에서 나라의 또 다른 장래를 보며 살고 있는 것이다.